

공영민 군수 “2030 고령인구 10만 달성 매진”

내년 예산 8천994억 편성...“지역경제·복지 강화 역점”
우주·드론·스마트팜 중심...미래 전략산업 육성 가속화

공영민 고령군수가 시정연설을 통해 우주, 드론,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한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2030년 인구 10만 달성’ 비전을 제시했다.

26일 고령군에 따르면 최근 공영민 군수는 제331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주요 성과와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고령군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10.87% 증가한 8천994억원으로

책정했으며,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동력 확보에 비중을 둔 점이 특징이다.

공영민 군수는 “취임 후 2년4개월 동안 고령의 변화와 발전, 군민 행복을 위해 전 공직자와 함께 열심히 땀 흘려, 고령의 미래 먹거리인 ‘우주, 드론, 스마트팜’이라는 3대 미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민선 8기 비전인 ‘2030년 고령 인구 10

만 달성’의 발판은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주요 성과로는 ▲46만평(약 152만㎡) 규모의 고령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확정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 착공 및 366억원 규모의 미래 비행체 관련 공모사업 선정 ▲24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유치 ▲17만3천여명의 역대 최대 규모의 방문객을 기록한 제4회 고령유자축제 개최 등을 꼽았다.

이어 “2025년은 민선 8기 군정 비전과 군정 핵심사업들을 완성해 가는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은 ▲우주발사

체 산업클러스터 조기 구축 ▲드론·도심항공교통(UAM) 중심도시 위상 확립 ▲대규모 고품형 농수축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고속도로, 철도, 국가산단 연계 도로 등 3대 교통인프라 조기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 ▲고령관광 1천만명 시대 개막과 고령의 역사·문화 재조명 ▲‘더 두텁고 더 촘촘한’ 복지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 소통 행정문화 정착 등이다.

공영민 군수는 “민선 8기 지난 2년 반 동안 고령만의 차별화된 자원과 역량을 하나둘씩 일궈 왔다”며 “이를 원동력으로 삼아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고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령=최봉환 기자



〈고령군 제공〉

장성군,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준비 ‘착착’

추진위원 회의서 AI센터 연계 등 발전방향 논의

장성군이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6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광주과학기술원 다산빌딩에서 추진위원 회의를 열고 연구소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의에는 정명호 전남대 의대 교수(위원장)를 비롯한 추진위원, 김한중 장성군수, 공직자들이 참석했다.

김용주 위원장은 “세계적인 연구소로 자

라 잡기 위해 기본설계 단계부터 총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신용진 위원은 “실시설계 기간 단축 등 조기 완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영근·이재영 위원은 AI(인공지능) 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최첨단 분석 장비 확보를 요청했으며, 정의현·이상옥 위원은 병원 및 환자 유치 방안을 검토하고, 연구소 설립 추진을 위한 포럼 개최를 제안했다.

정명호 위원장은 “성공적인 연구소 운영을 위해 임상 의사 양성, 기초연구센터·병원 연계, 의료산업단지 유치 등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며 “의료산업단지 간 네트워크 구축, 연구원 정주여건 조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한중 군수는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질병관리청에 잘 전달하겠다”며 “국립심뇌혈관센터 장성시대를 성공적으로 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지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장성군 제공〉

화순군 치매안심센터, 차량 이동서비스 제공

내달 19일까지 매주 화·수·목요일...거동 불편 이용객 대상 무료

화순군 치매안심센터는 26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 센터 이용객을 대상으로 안심 이동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안심 이동서비스는 지난해 9월부터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역 택

시 및 임차 차량을 활용한 맞춤형 교통 서비스다. 치매 프로그램과 조기 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정과 치매안심센터로 오가는 차량을 무료로 지원한다. 올해는 3월부터 11인승 승합 임차 차량을 운행 중이며, 12월19일까지 매주 화·수·목 교통 취약지역 거주자와

거동불편자에게 안심 이동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치매 프로그램 참여 증가 및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많은 주민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마라 보건소장은 “치매 안심 이동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성과 참여율을 높여 치매 중증화 예방에 효과가 큰 만큼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환자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담양 금성면 지사協, 무선 초인등 설치 지원

청각장애인·난청 어르신 생활 편의 증진

담양군 금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청각장애인과 난청 어르신 20가구를 대상으로 무선 초인등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상생활에서 초인종 소리를 듣기 어려운 청각장애인과 난청 어르신들이 외부 방문자를 인지하지 못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선초인등은 방문자가 초인종을 누르면 실내에서 불빛으로 알람을 제공하는 장치로, 장애인과 노년층의 안전

과 편의를 위해 설계됐다. 금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초인등이 필요한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설치 과정까지 세심히 관리했다. 설치된 초인등은 사용이 간편하고 유지 관리가 쉬워 대상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최종덕 금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청각장애와 난청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번 무선초인등 설치 사업을 통해 그들의 생활이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해질길 바란다”고 전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장흥군, 지역상품권 부정 유통 집중 단속 실시

내달 20일까지...가맹점 등록 취소·과태료 부과 등 조치

장흥군은 26일 “오는 12월20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부정 유통 의심 거래 내역을 추출하고,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를 토대로 해당 가맹점을 방문해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

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사행업 등) 영위 행위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현금 영수증 발행 거부 등이다.

장흥군은 단속 결과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

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 이득금 환수 등 행정처분과 재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단속을 철저히 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겠다”며 “군민 모두가 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신뢰를 높이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장흥=노형록 기자

“사이버 농장서 ‘보성 골드키위’ 키워요”

모바일 ‘홈쇼핑모아’ 앱 통해 참여...재배 성공 시 자택 배송

보성군은 “최근 모바일을 활용한 사이버 농장 내 ‘보성 골드키위 키우기’ 행사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성군, ㈜버즈니, 보성키위 영농조합법인이 협력해 추진하는 상생협력 마케팅 프로젝트다.

‘홈쇼핑모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골드키위를 선택해 재배에 성공하면 보성

골드키위 2kg을 집으로 무료 배송받을 수 있다. 신규 이용자는 골드키위를 선택해 키울 수 있고, 기존 이용자는 골드키위를 ‘꼬마 작물’로 추가해 기존 작물과 함께 재배할 수 있다.

보성키위는 1970년대 후반 소량의 키위 묘목을 도입한 이후 현재 330여 농가에서 연간 약 4천500t을 생산해 전국 1위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다. 지난 2022

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11호로 등록되며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았다.

보성군은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11호 보성키위 외에도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 보성녹차, 수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 별고꼬막,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7호 응지울벼짚을 보유하고, 지역 대표 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참여해 보성의 대표 농산물인 골드키위를 직접 재배하며, 건강과 재미를 함께 경험할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언 기자



〈광양시 제공〉



〈광양시 제공〉

광양 4대 산성, 늦가을 산책·사색 명소 추천

마로산성·불암산성 등 지역 대표 유적지 자리매김

광양시가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산책과 사색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명소로 유서 깊은 광양 4대 산성을 추천했다.

26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 4대 산성은 백제시대에 축성된 마로산성, 불암산성, 봉암산성과 고려시대에 쌓은 중흥산성으로 각각 독특한 역사와 풍광을 자랑하며 지역의 대표 유적지로 자리 잡고 있다. 마로산성(사적 제492호)은 광양읍 마로산 정상부를 감싸는 테뫼식 산성으로,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사용된 성벽과 다양한 유물이 발굴돼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불암산성(도지정기념물 제177호)은 백제시대에 축조된 협축식 석성으로, 문지와 건물터 등과 함께 출토된 기와와 토기류가 성의 유구한 역사를 증명한다. 역불봉과 수어호를 배경으로 자

연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점도 매력이다. 봉암산성(문화재자료 제283호)은 신아리 고지에 위치한 소형 산성으로, 섬진강과 하동군 일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요새다. 산성 이름은 벌이 모여 있는 형국에서 유래했으며, 섬진강으로 뻗은 바위의 형상이 호랑이 발톱 같아 ‘호암’으로도 불린다.

중흥산성(전남도 기념물 제178호)은 광양 유일의 토성으로, 중흥사와 함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광양 4대 산성은 한때 치열한 격전지였으나 이제는 현대인들에게 고요한 안식처로 사랑받는다.

김성수 광양시 관광과장은 “광양 4대 산성은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특별한 장소로, 늦가을 단풍 속에서 산책과 사색의 시간을 만끽하기에 더없이 좋은 명소”라고 밝혔다. /광양=양홍열 기자

순천시, 자원순환 거점 공간 ‘재활용 놀이터’ 3개소 운영

마로산성·불암산성 등 지역 대표 유적지 자리매김

순천시는 “최근 덕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순천시 재활용 놀이터 조성에 따른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소식에는 서면, 덕연동, 도사동 3개소 읍·면·동 재활용 놀이터 운영자와 주민들이 참석했다.

재활용 놀이터는 주민단체가 협력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공유공간을 활용해 맞춤형 자원순환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이다.

올해 제로웨이스트 거점공간 조성 사업 공모에 따라 서면, 덕연동, 도사동 총 3개소의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

각 공간별로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 수거기를 설치했으며,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종량제봉투, 리필세제 등 보상 체계를 갖춰 본격적으로 운영을 개시했다.

/순천=정기 기자